

關野貞의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조사 연구, 그 성과와 한계*

이 종 수**

- I. 머리말
- II. 關野貞의 고구려 고분벽화 조사 활동
- III. 關野貞 벽화 연구의 성과와 한계
- IV. 맺음말

I. 머리말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고구려 고분벽화의 조사와 연구는 동경제국대학 교수 關野貞(세키노 타다시)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1910년대에 발굴된 15기의 고구려 벽화고분이 모두 그의 의해 조사된 것일 만큼,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하다.

關野貞에 대한 연구는 사학, 고고학, 미술사학, 건축학 등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다. 먼저 일본인 학자들의 행적을 밝혀내고, 식민사관을 규명하려는 방향에서 연구가 진척되었다.¹ 벽화 연구사의 측면에서는 일제강점기의 고구려 고분벽화 발굴 상황을 전체적으로 서술하고 그 의미를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² 일본에서의 연구는 그 연구 성과에 의

* 이 논문은 본인의 석사학위논문 가운데 일부를 보완·정리한 것임

** 명지대학교 박사과정

의를 부여하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비판적인 논조가 간혹 눈에 띄는 정도이다.³

이렇듯 일제강점기의 벽화 연구나 고적 조사, 미술사관을 논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關野貞의 이름이 거론된다. 하지만 關野貞과 고구려 고분벽화의 관계를 독립된 연구 주제로 다루지는 않았다. 그의 식민사관에 대한 비판이 주된 논제였으며,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사의 측면에서도 당시 조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다. 물론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일본인 학자의 연구를 주목하여 그 의의를 찾고자 하는 일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실에 대한 규명 없이는 대상에 대한 극복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연구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사에서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연구 과제인 셈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關野貞의 고구려 고분벽화 조사 과정을 살펴가면서 그의 벽화 연구가 지닌 성과와 한계에 대해 짚어볼 것이다. 이와 함께 근대와 제국주의가 만나는 지점에서 진행된 그의 연구가 지니는 이면의 의미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關野貞의 고구려 고분벽화 조사 활동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關野貞의 연구를 크게 분류해보자면 먼저 1912년부터 1916년 사이의 조사를 바탕으로 발표된 발굴 보고서와 학술 논문들을 들 수 있다.⁴ 기본적으로 발굴 보고를 목적으로 한 이 글들은 조사 당시의 현장 상황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

- 1 이만열, 「일제관학자들의 식민사관」, 『한국의 역사인식』 下(창작과 비평사, 1976); 조선미, 「일본 관학자들의 한국미술사학 연구에 대하여」, 『미술사학』 3집(1991); 최태만, 「일제시대 한국미술사 서술에 있어서 환경 결정주의의 비판적 고찰」, 『한국근대미술사학』 10집(2002); 우동선, 「세끼노 타다시의 한국고건축 조사와 보존에 대한 연구」, 『한국근대미술사학』 11집(2003); 이명선, 「韓國における建築文化(慣)成立過程の研究」(東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03); 中西章, 「『韓國建築調査報告』에 보이는 關野貞의 韓國建築觀」, 『건축역사연구』 제3권 1호(2004. 3); 강현, 「關野貞과 건축문화계 보존」, 『건축역사연구』 제14권 1호(2005. 3); 鄭仁盛, 「植民地朝鮮における「古蹟調査」の記憶」, 『コロニアリズムと「朝鮮文化」』(早稻田大學朝鮮文化研究所, 2006).
- 2 유흥준·이태호, 「고구려 벽화고분의 발굴·연구사」, 『한국미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학고재, 1997);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사」, 『고구려연구』 제4집(1997).
- 3 일제의 고적 조사 활동에 대한 비판을 담은 연구로는 西川宏 「日本帝國主義下における朝鮮考古學の形成」, 『朝鮮史研究會論文集』 7(朝鮮史研究會, 1970. 6)을 들 수 있으며, 關野貞의 조선미술사관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로는 高木博志 「일본 미술사와 조선 미술사의 성립」,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휴머니스트, 2004)가 있다. 關野貞에 대한 폭넓은 자료와 연구 논문을 제공해주는 최근의 성과물로는 藤井惠介 外, 『關野貞アジア踏査』(東京大學綜合研究博物館, 2005)를 참고할 만하다.

6 關野貞의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조사 연구, 그 성과와 한계

한 자료이다. 關野貞 자신의 육성을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그의 솔직한 관점을 알 수 있는 글들이다.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자료는 1932년에 출간된 『朝鮮美術史』이다. 關野貞이 ‘미술사’라는 체계를 갖추어 조선의 미술을 이야기했다는 점이 주목되기 때문인데, 고구려 고분벽화 서술에서도 발굴 당시의 보고서와는 관점의 차이가 드러난다.

그가 조선의 유적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19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만큼, 10년간 축적된 조선 고적 조사의 경험이 고구려 고분벽화 발굴의 바탕이 되었다. 역으로 보자면, 關野貞이 고구려 고분벽화 발굴의 선봉에 서게 된 것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조선땅 곳곳을 조사했던 그의 경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 시기의 조사는 주로 조수인 谷井濟一(야쓰이 세이이치)과 栗山俊一(쿠리야마 준이치)이 함께 했다. 關野貞이 재직하던 동경제국대학 출신의 두 조수는 각각의 전공에 따라 關野貞을 도왔으며, 조사와 함께 이루어진 벽화의 모사는 小場恒吉(오바 쓰네키치)과 太田福藏(오오타 후쿠조)이 담당하였다. 동경제국대학의 조사팀과 동경미술학교의 모사팀이 손발을 맞추어 조사를 실시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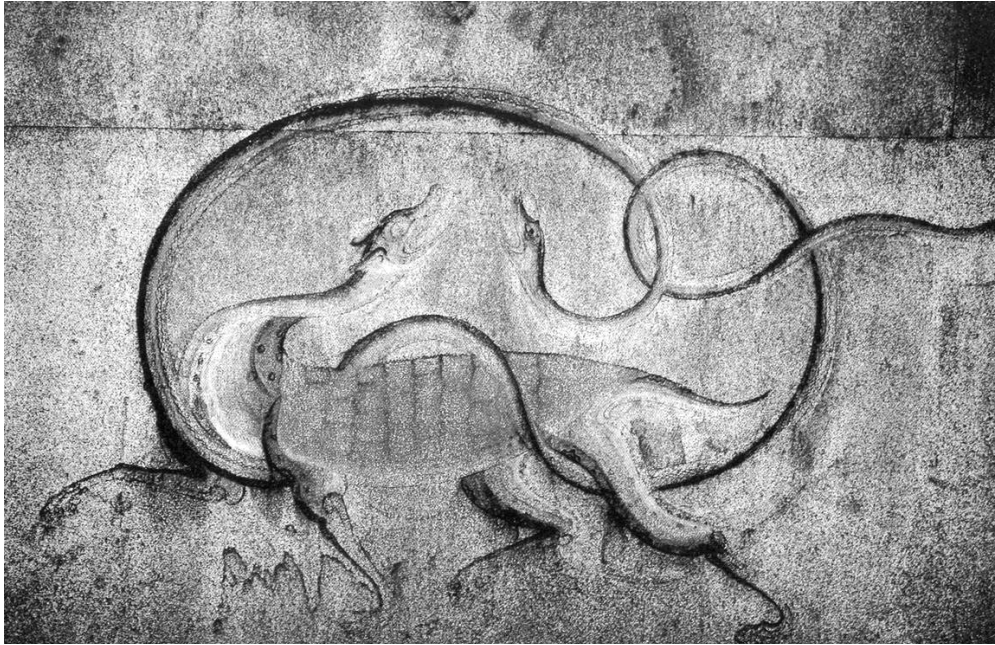
1. 1912년의 조사

1912년 關野貞이 최초로 조사한 고구려 벽화고분은 江西郡 遼賢里의 大墓과 中墓이다.⁵ 조사는 9월 23일 우현리에서 시작하였으며, 같은 강서군에 위치한 간성리에서도 이미 한 고분이 발견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연이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고구려 고분벽화에 관한 關野貞의 첫 강연은 1913년 1월에, 논문은 1913년 2월에 발표된다. 첫 조사를 마친 것이 1912년 10월 말이었고 모사도 제작에 소요된 시간이 두 달 이상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상당히 신속하게 학계에 보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고구려 고분벽화에 쏠린 관심을 짐작해볼 수 있을 듯하다.

이 해의 고분 발굴은 고구려 벽화고분에 대한 조직적인 첫 조사였기 때문에 關野貞은 조사 배경에 대한 이야기로 논문을 시작한다. 고분들의 위치와 크기, 조사 당시 고분들의 상태에 대해 서술한 후 고분의 구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설명하였다. 강서 대표·중묘와 關野

⁴ 발굴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는 이 논문들은 모두 關野貞, 『朝鮮の建築と藝術』(岩波書店, 1941)에 계수록되어 있다. 關野貞의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목록은〈참고문헌〉참조.

⁵ 關野貞 발굴 벽화고분의 명칭은 1932년 『朝鮮美術史』에 실린 명칭을 기준으로 하였다. 벽화고분의 명칭 비교는 (표1) 참조.



도1 현무, 강서대묘

貞의 관계는 여타의 고분들과는 다른, 좀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關野貞이 고구려 고분 내에 벽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곳으로 이 벽화고분의 조사가 이후 벽화고분 발굴의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발굴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후 벽화에 대해서는 대묘, 중묘의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關野貞은 대묘의 玄室 안에 그려진 四神圖 앞에서의 느낌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첫 벽화와와의 만남에서 받은 감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나를 생생히 전해준다(도1). 또한 천장 고임 위에 그려진 여러 가지 문양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중국과의 영향 관계를 중요시하였다.

한 걸음씩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연도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광선에 비친 이 회화문양을 볼 때는, 누구라도 그 장려한 아름다움에 눈을 잃을 수밖에 없다. (중략) 우리들이 이—천장 삼각 고임에 그려진—회화문양을 보면 확실히 支那 南北朝時代의 특색을 나타내고, 우리 飛鳥時代의 것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보인다.⁶

중묘는 대묘에 비해 크기는 작으나, 건축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 고분

8 關野貞의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조사 연구, 그 성과와 한계

이라 평하였는데, 특히 각 벽면을 커다란 한 장의 석재로 마감한 대담한 솜씨에 대해 건축학자로서 놀라움을 드러내었다. 사진도에 관해서도 대묘에 비해 ‘수법은 오히려 세련을 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⁷ 關野貞은 고분의 발굴과 함께 묘사를 지시하였으며 조사가 끝난 후, 벽화의 훼손을 우려하여 보존 방침을 총독부에 건의하였다.⁸ 그가 단지 학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고분을 발굴했을 뿐 아니라 고분의 보존 대책을 건의하고 그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關野貞이 1912년에 조사한 또 하나의 고분은 肝城里 蓮花塚이다. 벽면에 칠을 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렸으나, 전체적으로 훼손이 심한 상태여서 천장석에 그려진 연화문만을 제대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우현리의 무덤들보다 더 오래된 무덤일 것이라며 연대를 비교하는 것으로 1912년의 벽화고분 발굴 보고를 마무리하였다.⁹

2. 1913년의 조사

1913년에는 평양 부근뿐만 아니라 집안현 지역까지 조사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9월에서 11월까지 평양 부근 5기, 집안현 4기 등 무려 9기의 고분에서 벽화를 발굴하였으니, 고구려 벽화고분 발굴사상 가장 많은 고분이 조사된 해이다. 전년도의 발굴 성과로 인해 고구려 벽화고분 조사에 더욱 힘을 실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1913년 9월에 조사를 시작한 평양 부근의 安城洞에서는 大塚와 雙楹塚의 두 무덤을 발굴하였다. 대총의 경우 前後 兩室墳으로 이루어진 묘의 내부 곳곳에 벽화가 그려져 있었으나, 발굴 당시에는 이미 손상이 심해서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고 한다.¹⁰ 이에 비해 쌍영총은 벽화가 많이 남아 있는 고분으로, 關野貞은 이 고분의 벽화가 당시의 풍속 일반을 알려주는 데 충분하며 매우 사실적인 풍속화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남자의 관과 여자의 머리장식에 대해서도 後漢書, 新唐書 등에 묘사된 고구려인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이 회화의 사실성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¹¹ 이와 함께 玄室 북벽에 그려진 그림을 주목하였는

⁶ 關野貞 『朝鮮の建築と藝術』(岩波書店, 1941), pp. 402-405.

⁷ 위의 책, pp. 406-407.

⁸ 『古墳保存ニ關スル覺書』(大正2年) (본 건의서의 내용은 早乙女雅博, 「高句麗壁畫古墳の調査と保存」, 『關野貞アジア踏査』[東京大學綜合研究博物館, 2005], p. 279에 재수록되어 있다.)

⁹ 關野貞 앞의 책, p. 390.

¹⁰ 위의 책, p. 392.

데, 당시의 인물들과 건축양식이 자세히 표현되어 있음에 흥미를 느낀 것이다.

북벽에 베풀어진 회화는 가장 불만한 것이다. 즉 중앙에 누각을 그리고 그 안에 부부의 모습을 그렸다. 누각의 그림에는 계단, 문, 두공, 지붕, 보 등의 장식이 있다. 또 그 위에 장막 및 지붕과 같은 것이 있다. 좌우 기둥 모양 위에 鬼形을 만들었다.¹²

두 무덤 이외에도 梅山里四神塚, 花上里龕神塚, 星塚 등의 벽화고분을 발굴하였다. 메산리 사신총의 경우, 주인공 부부로 추정되는 인물도에 묘사된 領巾의 표현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인물이 중국 육조시대 銅鏡에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연대에 있어서도 ‘약 천오백 년 전의 것으로서 지금까지 발견된 조선 벽화 가운데 가장 오랜 것에 속할 뿐 아니라, 실로 일본이나 支那를 통해서 남아 있는 最古의 회화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¹³ 감신총과 성총은 李王職事務官인 末松嶺彦이 처음으로 발견한 무덤으로, 이처럼 최초의 발견자가 關野貞이 아닌 경우도 많았다. 본격적인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關野貞이었던 것이다.

평양 부근의 벽화고분 조사를 마친 關野貞은 연이어 집안현에서 조사를 시작하여 三室塚, 散蓮華塚, 龜甲塚, 美人塚에서 벽화를 발굴하였다. 집안현은 이미 1907년 에두아르 사반느(E. Chavannes)가 벽화를 발견하였던 곳으로, 關野貞 또한 사반느의 보고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¹⁴ 이 조사에는 앞서의 두 주수에 今西龍(이마니시 류)까지 합세하였다.

삼실총은 묘실이 세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붙여진 이름이다. 일반적으로 兩室이나 單室로 되어 있는 여타의 고구려 고분과는 다르게 축조된 묘실의 구조가 먼저 눈길을 끌었음을 알 수 있다. 關野貞은 이 무덤의 독특한 구조와 회화에 대해서 ‘그 천장 구조의 기이하고도 정교함과 그 회화문양의 雄渾奇古함 등과 아울러, 통구 지방의 이런 종류의 고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¹⁵ 산연화총과 귀갑총에 대하여는 벽면에 그려진 연화문양이 삼실총과 유사함을 지적하면서, 세 무덤이 만들어

11 “남자의 관에 2개의 깃을 꽂고 있는 것은 後魏書, 後周書, 新唐書에도 보이고, 부인의 머리 중심에巾幘을 사용한 것은 신당서에 볼 수 있는 것인데, 또한 모두 이 그림에서도 나타난다.” 위의 책, p. 397.

12 위의 책, p. 395.

13 위의 책, p. 382.

14 에두아르 사반느의 고구려 벽화고분 발견 경위에 대해서는 서길수, 「에두아르 사반느의 고구려 국내성 탐사(1907)에 관한 연구」, 『고구려연구』22집(2006) 참조.

15 關野貞, 앞의 책, p. 292.

진 연대를 거의 같은 시대로 추정하고 있다.¹⁶ 미인층의 경우 조사 당시에도 이미 벽면의 회화문양을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이 심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이 벽화의 스케치는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안타깝게도 화계로 소실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¹⁷ 이처럼 조사 및 정리 과정의 사고로 인해 당시의 벽화 관련 자료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3. 1916년의 조사

1916년은 關野貞이 마지막으로 고구려 벽화고분을 발굴한 해로, 1920년 이후의 고적 조사에서는 새로운 벽화고분을 발굴하지 않고 기존의 고분을 재답사하는 성격을 띠게 된다. 이 해에 발굴한 벽화고분은 모두 3기로 평양 부근인 대성산 기슭에서 2기, 순천군에서 1기를 조사하였다. 두 조수 이외에도 野守健(노모리 타케시), 小川徹吉(오가와 게이키치)이 동행했으며 小場恒吉이 정밀한 실측도와 모사도를 제작하면서 關野貞의 조사를 도왔다. 關野貞은 1916년의 발굴을 보고하는 논문 첫머리에서 앞서 발굴했던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해 ‘비교적 簡樸古拙한 것과, 雄渾壯麗를 사용하여 불만한 것도 있는데 이로써 육조시대 회화의 일반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라는 총체적인 평가를 내린다.¹⁸ 지금까지 조사했던 고구려 고분 벽화들은 육조시대 회화가 어떠했나를 알려주는 것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표현이 되는 셈이다.

鐵馬塚은 벽면의 석회가 떨어져 나간 부분이 많아서 남아 있는 회화는 많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支室의 입구를 지키는 역사의 모습에서는 용맹스러움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발굴 중 야간에 작업한 (혹은 들어간) 사람 때문에 파괴되어 버린 것은 애석하다’라는 발굴 당시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남기고 있다.¹⁹ 당시 작업 현장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셈인데, 기록에는 남기지 않은 유사한 상황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²⁰ 關野貞

¹⁶ 위의 책, p. 294.

¹⁷ 위의 책, 같은면.

¹⁸ 위의 책, p. 410.

¹⁹ 위의 책, p. 415.

²⁰ 關野貞은 이때의 사고를 간단하게 남기고 있지만, 당시의 고분발굴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던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야간에까지 강행해야 할 정도로 촉박한 일정의 발굴이었다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놓치고 지나간 것도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혹 조사 이외의 이유로 누군가 들어간 것이라면 유적 현장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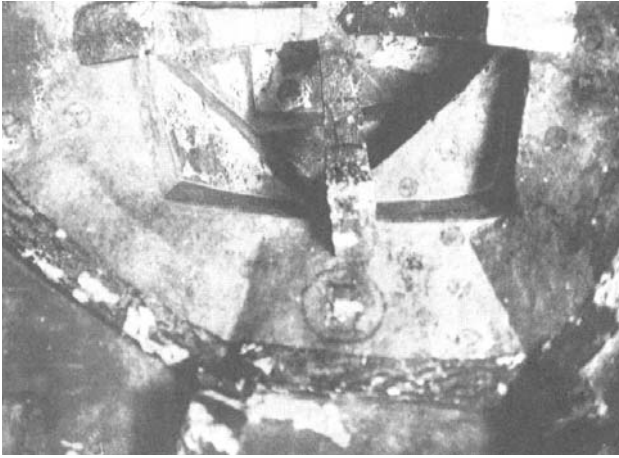
도2 행렬도 개마총

은 ‘原(?)王著鎧馬之像’(이는 그가 오독한 塚主着鎧馬之像이 옳다)이라는 墨書가 발견된 점에 주목하여 ‘고구려 시대 유일하게 목서를 가진 묘’라는 점에 발굴 의의를 두었다(도2). 湖南里 四神塚은 내부의 천정과 벽을 대리석으로 쌓아 만든 특이한 고분이다. 關野貞 또한 이 사실에 흥미를 느낀 듯 ‘대리석을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반복하면서 고분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돌 위에 직접 그림을 그려 박락의 위험은 없었으나, 벽의 하반부가 물의 침식으로 인해 완전히 소실되어 버린 상태였다고 한다. 그는 玄室 네 벽의 사신도를 하나하나 묘사하면서 다른 고분에 그려진 사신도와와의 시대적 선후관계를 비교해보기도 하였다.

동벽에는 창룡, 서벽에는 백호를 그렸다. 형태는 奇古雄勁하여 앞의 논문에 기술한 강서 우현리의 것보다는 멀어 오래되었고, 거의 매산리 수총(사신총)의 것에 가깝다. 그 연대를 생각하자면, 아마도 천사오백 년 전에 속하는 것이다.²¹

순천군의 天王子神塚은 이미 1914년에 발견된 후 벽화가 많이 훼손되었다고 한다(도3). 關野貞은 조사 후 일단 입구를 폐쇄시켰으며, 1917년에 실측도와 벽화의 모사도를 제작한 후, 완전한 수리를 총독부에 건의하였다. 이를 마지막으로 1910년대의 벽화고분 발굴은 일

²¹ 關野貞, 앞의 책, p. 415.



도3 천장 구조 사진, 천왕지신총

단락을 맺게 되는데, 새로운 벽화고분 발굴은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재개된다.

4. 1932년 『조선미술사』에 서술된 고구려 고분벽화

『朝鮮美術史』는 저자의 조선미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저서이다. 총론과 본문, 맺음말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낙랑군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7장에 걸쳐 시대순으로 정리되어 있다.²² 이 가운데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해설은 ‘제2장 고구려’의 ‘제2절 능묘’ 부분에 실려 있다. 1910년대의 조사에 몇 차례 재답사의 성과를 더하여 서술한 것이다. 국내성 지방과 평양성 지방의 능묘로 나누어 벽화고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본 후, 능묘에 대한 간략한 개론으로 절 전체를 정리하는 구성을 취하였다.

먼저 국내성 지방의 능묘를 서술하는 부분에서 저자는 이 지역의 수많은 고분에 대해서 ‘이런 무수한 고분을 보면, 당시 고구려 문화가 얼마나 융성했으며 오랜 세월 동안 계승되었는가를 추측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데,²³ 이는 단순히 고분이 많다고 진술했던 1913년의 조사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특히 최초로 조사한 벽화고분인 강서군 우현리의 대표와 중묘에 대해서는 ‘고구려 말의 가장 세밀하고 숙련한 기술을 대표할 만한 훌륭한 벽화가 발견

²² 『朝鮮美術史』는 1923년에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1932년에 출판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1932년 출판본(關野貞, 『朝鮮美術史』[朝鮮史學會, 1932])과 2003년 번역본(關野貞 지음, 심우성 옮김, 『조선미술사』[동문선, 2003]) 모두를 텍스트로 삼았으며, 본문의 인용문은 번역본을 기준으로 하였다.

²³ 關野貞, 심우성역, 『조선미술사』(동문선, 2003), p. 101.

되었다'라는 말로 해설을 시작한 후, 회화 기법에 대해서도 고구려 벽화 가운데 드물게 나타나는 '石壁畫'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대목이 있어 눈길을 끈다.²⁴

다른 고분의 예에서는 두꺼운 灰漆을 하였으나, 여기서는 화장암을 정성스럽게 뚫어 편평하게 하고 그 위에 바로 색깔을 입혀 회화장식을 하였다. 다른 고분들은 회칠의 손상으로 채색된 곳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화면이 선명치 못하다. 그러나 이 무덤은 돌 위에 바로 색깔을 입혔으므로 거의 떨어져 나가지 않아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²⁵

그러나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즉 개개의 벽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능묘에 대한 총평을 서술할 때에는 중국의 예술양식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래의 같은 결론을 내린다.

강서의 대표·중묘가 北魏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 지금까지 발견된 대부분의 다른 고분의 벽화장식은 북위 이전 東晉시대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특히 인물화는 고구려의 당시 풍속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우리들은 이 고분들의 유물을 보면서 중국에서 이미 사라져 버린 북위 이전의 예술양식을 엿볼 수 있다.²⁶

이처럼 『조선미술사』의 고구려 고분벽화 서술은 발굴 당시의 논문들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벽화양식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견해를 덧붙이기도 하였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도 앞 시기의 논문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점이 주목된다. 자신이 발굴한 고분들을 다시 정리해보는 과정에서 벽화의 아름다움을 비교적 솔직하게 인정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대상을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간과 시선의 여유를 가짐으로써, 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평가가 가능했을 것이다. 다만 벽화의 양식에 대해서는 중국적인 영향을 기준으로 해설하는 태도는 앞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미술을 대하

²⁴ '石壁畫'는 關野貞이 사용한 용어는 아니며, 이태호 교수가 고구려 벽화를 기법에 따라 石壁畫와 灰壁畫로 분류할 때 사용한 표현이다. (이태호 「삼국시대 후기 고구려와 백제의 사신도 벽화」, 『고구려 연구』 16집[2003], p. 288.)

²⁵ 關野貞, 앞의 책, p. 115.

²⁶ 위의 책, p. 117.

는 그의 기본적인 관점 자체가 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²⁷

III. 關野貞 벽화 연구의 성과와 한계

1. 근대적 조사 방식의 전형

關野貞의 고분벽화 연구가 이룬 성과로는 먼저 그의 조사가 근대적인 조사 방식의 전형을 제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발굴 보고를 위해 쓰인 그의 논문들은 대부분 일정한 순서로 전개된다. 먼저 고분을 발굴하게 된 배경으로 글을 시작하면서 고분의 위치와 건축적 구조를 설명한다. 이어 고분에 대한 명명 방식을 제시한 후, 벽화의 각 장면들을 펼쳐 이야기 하는데 여기에 회화적 특성을 중국과의 영향 관계 속에서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분 조성 연대를 추정하면서 그 의의를 정리하는 형식으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다. 새로운 발굴을 전제로 한 논문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으니, 고분 조사 과정을 그대로 잘 정리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조사 방식과 보고서의 형식을 통일함으로써 그는 발굴 내용의 큰 편차 없이 작업을 한결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팀을 형성하여 발굴을 진행하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인 그의 조수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조사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關野貞이 직접 현장에 나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대신하기도 했다. 이런 경우 보고서는 여러 사람의 연구를 ‘모아’ 정리할 수밖에 없다.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팀으로 활동하던 그들에게 상당히 편리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이 점이 단기간에 엄청난 조사가 가능했던 비결이라 생각되는데, 그는 이처럼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명민한 관리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조사 보고라는 목적을 띤 논문에 일정한 표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듯 효

²⁷ 關野貞의 조선미술에 대한 인식을 그의 전공 분야인 건축학의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이 땅에 있는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한국건축이라는 전체를 평가하려 했을 때에는 편견에 찬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는 한국문화는 중국의 일부라고 하는 당시 일본에서의 일반적인 한국인식에 얽매었기 때문에 두 평가 사이에 괴리가 생겨났다는 해석이다(中西章, 앞의 글, p. 30.). 실제의 대상과 고정관념 사이에서 그가 선택한 이중적인 평가 방식이 고구려 고분벽화나 조선미술에 대해서도 적용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율성을 앞세운 고정된 형식에는 문계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틀’이란 그 자체가 ‘균질성’을 추구한 근대의 산물이다.²⁸ 그것은 효율성의 다른 이름이며,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평균’적인 그 무엇이다. 틀의 효율성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형식과 함께, 그에 담긴 내용까지도 균질화해야 한다. 關野貞 또한 틀이 허락하는 내용만을 보고 틀 속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은 보는 대상에서 제외시켜 나갔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조사한 15기의 고분은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그의 논문들은 여러 해에 걸쳐 발굴을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연구 주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벽화고분이 발굴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발굴고분을 다시 다루고 있는 경우에도 그의 논문은 같은 형식 안에서 비슷한 내용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벽화고분 연구성과가 축적되지 않았던 당시의 시대적 한계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당시 일본 학자들의 고구려 고분 벽화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단지 시대의 문제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실물을 통해 도상을 비교 분석한다든가 벽화의 주제 변화를 탐구하는 등의 깊이 있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던 것이다.²⁹ 발굴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關野貞의 논문이 지닌 한계점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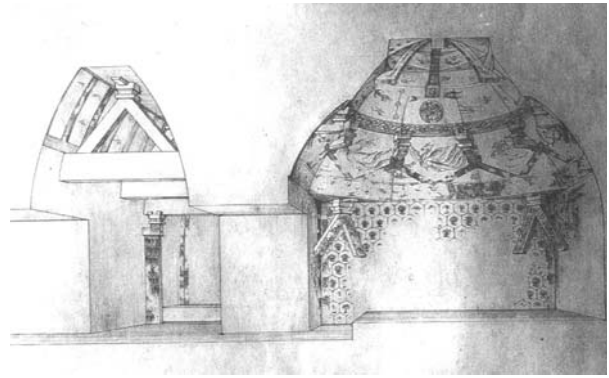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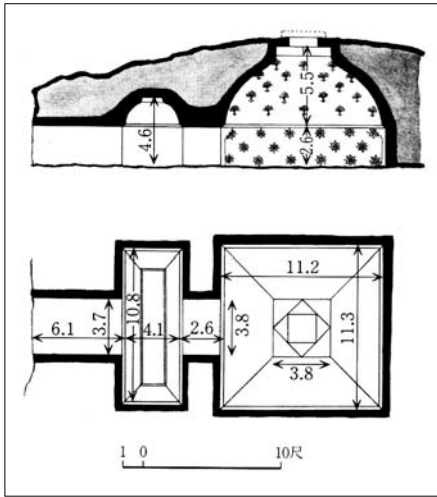
물론 자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의 연구가 상당히 가치 있게 받아들여진 것도 사실이다. 형식을 표준화한 그의 논문은 사진이나 실측도 등의 이미지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보고서로서의 사실성을 담보하게 된다. 객관적 증거로서의 능력을 손쉽게 인정받고 있던 사진으로 조사 현장을 꼼꼼히 기록하였으며, 여기에 정확한 측량을 바탕으로 한 실측도와 서구적인(근대적인) 시점의 투시도가 더해졌던 것이다(도3-도5).

정확한 실측을 바탕으로 한 그의 조사 방식은 이후 일본 학자들 사이에서 정밀한 關野貞式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와 동시대에 활동한 藤田亮策(후지다 료사쿠)와 같은 이는 ‘일본 고고학의 발굴에 선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³⁰ 그의 연구가 당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적’인 이미지는 그 논문의 내용까지도 ‘정확하다’는

²⁸ 이 논문에서의 균질성의 개념은 근대 사회에서의 공간, 경험, 지(교육) 등의 규격화 혹은 평균화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효덕, 박성관 역, 『포상 공간의 근대』(소명출판, 2002)에서 제시한 개념을 기준으로 하였다.

²⁹ 內藤湖南(湖次郎), 「高句麗古墳の壁畫に就て」, 『支那繪畫史』(弘文堂書房, 1938; 1919년 강연원고 재수록); 中村清兄, 「高句麗時代古墳について」, 『考古學論叢』第4輯(1937. 3); 中村清兄, 「再び高句麗時代古墳について」, 『考古學論叢』第7輯(1938. 6) 참조.

³⁰ 藤田亮策, 「朝鮮古蹟調査」, 『古文化の保存と研究』(吉川弘文館, 1953), p. 357.



도4 실측도, 산연화총
도5 투시도, 천왕지신총

인식을 확립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듯하다. 關野貞 자신도 이미지의 이러한 힘을 잘 알고 있었던 듯, 근대적인 조사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의 발굴 보고서들이 반드시 ‘사진, 실측도, 해설’의 구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사 방침을 제시하였던 것이다.³¹ 실제로 關野貞 死後인 1930-1940년대 벽화고분 조사 보고를 보면, 후대의 발굴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關野貞의 이런 방침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²

그의 이미지가 창출한 효과는 합리(ratio)의 차원을 넘어 가치의 차원으로 도약한다. 근대적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사진 등의 이미지는 식민지 조선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일체의 목적 자체를 근대적인 것으로 보이게 한다. 이 사진들을 『朝鮮古蹟圖譜』라는 자료집의 형식으로 출간했던 것도, 그 자료집의 간행이 학술적인 공로로 인정받았던 것도 모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³³

³¹ 『古墳保存ニ關スル覺書』(大正 2年)에서 보존방침을 서술한 뒤에 고분 발굴의 자세로 위와 같이 언급하였다.

³² 池内宏・梅原未治, 『通譯』下(日滿文化協會, 1940); 『昭和11年朝鮮古蹟調査報告』, 『昭和12年朝鮮古蹟調査報告』 참조.

³³ 關野貞은 다음과 같이 『朝鮮古蹟圖譜』의 출판 이유를 밝히고 있다. “..... 가치가 있는 것의 사진을 촬영했는데, 그것이 수천 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 애석하여 『朝鮮古蹟圖譜』를 발행하고 이것 등의 사진을 게재한다면 학계에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關野貞 「朝鮮寶物, 古蹟, 名勝, 天然記念物保存令發布について」, 『朝鮮佛教』[1933, 10], p. 28.). 『朝鮮古蹟圖譜』의 발행 공로를 인정 받아 關野貞은 1917년 프랑스의 학술원상을 수상하였다.

2. 고분의 이름 짓기와 模寫 작업

벽화고분의 첫 발굴자로서의 특성이 논문의 형식에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關野貞은 자신이 조사한 모든 고분에 직접 이름을 붙였다. 발굴 첫해인 1912년에는 무덤이 위치하고 있는 地名을 고분의 이름으로 사용하였으며 1913년 이후에는 벽화의 내용이나, 고분의 독특한 구조를 이용하여 이름을 지었다. 그 이름들이 지금까지 계속 불리어지는 것은 동일한 무덤을 다르게 부르는 데서 오는 혼동을 피하고자 했던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그의 命名 방식에 크게 무리가 없었다는 의미도 된다(표 1).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최초의 발굴자가 아닌 경우에도 命名은 그의 몫이 되었다는 점이다. 에두아르 사반느가 벽화를 발견한 그 무덤을 우리는 關野貞이 부여한 대로 ‘散蓮華塚’이라 부른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학술적인 발견에 주어지는 순수한 명예만은 아니었다는 의미가 된다. ‘명명이란 이른바 소유와 영유의 선언’이라는 것을³⁴ 關野貞 스스로 충분히 인식했던 듯하다.

표 1 關野貞 발굴 고분 명칭 비교

발굴 연도	발굴당시 논문	1932년 『조선미술사』	현재 일반명칭
1912년	강서대층	강서 대묘	강서 대묘
	강서중층	강서 중묘	강서 중묘
	간성리 고분	연회층	연회층
1913년	메산리 수층	메산리 사신층	수렵층
	화상리 대연회층	감신층	감신층
	성층	성층	성층
	안성동 대층	안성동 대층	용강 대묘
	쌍영층	쌍영층	쌍영층
	삼실층	삼실층	삼실층
	산연회층	산연회층	산연회층
	귀갑층	귀갑층	귀갑층
	미인층	미인층	미인층
1916년	개미층	개미층	개미층
	호남리 사신층	호남리 사신층	호남리 사신층
	팔각천 정층	천왕지신층	천왕지신층

이 부분에서 그의 첫 명명 방식을 다시 생각해본다. 어느 지역의 대표, 중묘, 소묘라고 부른다는 것은 ‘지명’과 ‘크기’라는 기준에 의한 분류를 전제로 하며, 개개의 가치는 전체 안에서만 의미를 부여받는다. 고분의 독자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최초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명명의 의도였다면 1913년 이후의 이름들은 언뜻 모순으로 비칠 수도 있다. 벽화와 건축을 이용한 ‘고유한’ 이미지의 창조는 균질성을 담보로 하는 최초의 명명 행위와 상충하는 면이 있다. 사회(官國)의 지향점과 개인(學)의 감상이 부딪치는 지점이었는지도 모른다. 최초의 벽화고분 3기를 채워 넣은 새로운 영토에서 命名者의 생각이 조금 유연해졌으리라 생각해볼 수도 있다. 명명의 힘은 현실의 힘에 의해 작동한다. 일본 제국주의가 견재하는 한, 고분의 이름이 조금은 개인적인 감상에 기초한다고 해도 명명이 지닌 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고분 개개의 독자성을 인정한 그의 명명법은 이런 자신감의 반증으로 읽을 수 있으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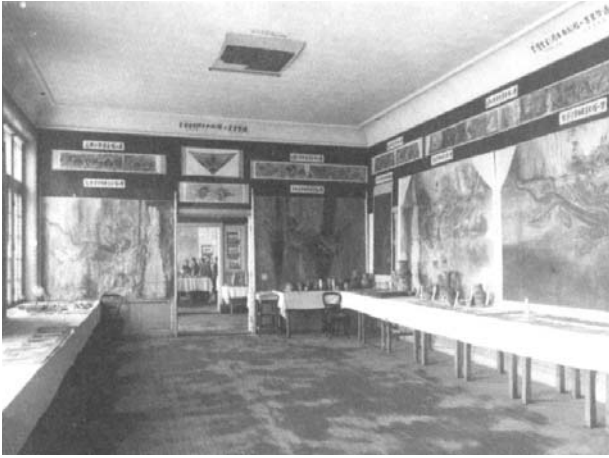
조선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한 일제에게 ‘고구려 벽화고분’은 새로운 소유지로 인식되었으며 발굴을 거듭함으로써 그곳은 촘촘하게 ‘이름’들로 채워질 것이었다. 조선의 합병 이후 토지조사가 시작될 때 關野貞들로 하여금 지도에 고적 관계사항을 정성들여 기입시키고 ‘국유지에 속함’의 명목을 채택하라’ 했다고 한다.³⁵ 그들에게 있어 고적의 이름을 짓고 그것을 지도(영토)에 기입하는 행동은 이렇게 명명된 고적들 또한 그들의 소유물임을 천명하는 행위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³⁶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는 효과적인 행사가 열렸다. 1913년, 벽화의 模寫圖가 — 식민지 조선의 다른 유물들과는 달리, 벽화 자체를 이동할 수는 없었으므로 — 일본으로 건너가 ‘전시’라는 소유 확인 과정을 거치기에 이른다(도 6). 그렇다면 벽화를 대신하여 전시된 이 모사도의 제작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關野貞이 벽화의 모사를 지시한 것은 최초의 발굴 현장에서의 일이었다. 발굴 시작과 함께 모사를 계획했던 것이다. 이미 사진이나 실측도·투시도와 같은, 보고서의 현장성을 증명하는 근대적인 매체들이 사용되었는데 또다시 모사도를 제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모사를 중시한 것은 사진과는 또 다른 이점에 주목했

³⁴ 와카바야시 미키오 지음, 정선태 역, 『지도의 상상력』(산치림, 2006), p. 255. 저자는 제국주의적인 판도 내에서 속령화 과정을 예로 들어 ‘발견’과 ‘명명’의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명명의 의미를 위치럼 정의하면서, ‘그토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토착문화와 문명을 무효화하는 것’이라는 적절한 해석을 제시한다.

³⁵ 李進熙, 「朝鮮考古學의 成果と課題」, 『考古學研究』 41 (1964, 8); 西川宏, 앞의 논문, p.100 에서 개인용.

³⁶ 명명한 사람은 關野貞 개인이지만, 발굴은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주체는 ‘제국주의 일본’이라는 국민국가(nation-state)가 된다.



도6 모사도 전시, 1913년 동경제국대학

기 때문이다. 최초의 모사도가 제작되던 1912년 당시, 사진은 벽화의 색채를 담아내지 못했으며 벽화의 크기를 그대로 재현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關野貞의 모사도 제작에 대해서는 ‘벽화의 내용을 문장으로 표현한 것보다 더욱 많은 정보를 준다’는 점과 ‘당시의 벽화 모사도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높다’는 면에서 그의 벽화 연구가 이룩한 두드러진 성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³⁷ 이와 함께 ‘보존’의 측면에서 그 가치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당시의 상황에서 벽화 자체의 보존은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사를 보존의 일환으로서 작성했다는 것이다.³⁸ 발굴 당시에 비해 훼손이 상당한 현재의 벽화 상태로 볼 때, 모사도 제작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그 가치를 제대로 짚어낸 것이라 생각된다(도7). 關野貞 이후, 1930년대의 벽화고분 발굴자들도 발굴과 함께 벽화의 모사도를 제작했으며 현대의 벽화연구자들 또한 모사를 벽화의 연구와 보존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다.³⁹ 關野貞이 시작한 벽화의 모사는 벽화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關野貞 팀에서 제작한 모사도는 양적인 면에서도 대단한 결과를 남겼다.⁴⁰ 벽화의 전체 모습은 물론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나누어 그림으로써, 벽화의 장면 장면에 대한 상

³⁷ 早乙女雅博, 「高句麗壁畫古墳の調査と小場恒吉の模寫制作」, 『高句麗古墳壁畫』(共同通信社, 2005), p. 333.

³⁸ 早乙女雅博, 「高句麗壁畫古墳の調査と保存」, 『關野貞アジア踏査』(東京大學綜合研究博物館, 2005), p. 288. 저자는 關野貞의 모사를 보존의 한 방침으로 설명하고 있다. 당시 상황에서는 문화계의 내적 보존이 불가능했기에 關野貞은 외적 보존을 제안했으며, 모사는 내적 보존을 대신할 방법으로 택한 것이라고 한다.

³⁹ 劉萱堂, 「壁畫模寫와 高句麗壁畫 무덤의 裝飾藝術」, 『고구려연구』 16집 (2003), pp. 505-506. 필자는 자신의 모사 체험을 제시하면서, 벽화의 모사가 벽화의 연구와 보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7 묘실 내부의 기둥과그모사도, 쌍영총

제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모사의 효용성만으로 關野貞과 모사의 관계를 다 설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모사에 대한 關野貞의 또 다른 의도를 짐작하게 하는 자료로서, 1913년에 그가 총독부에 제출한 『古墳保存ニ關スル覺書』가 주목된다. 그 내용 가운데에는 강서군 우현리 삼묘의 보존을 위해 ‘모사를 엄금할 것’을 건의하는 부분이 있다.⁴¹ 자신이 발굴한 고분에 대해 ‘모사권’을 ‘독점’하고자 한다는 인상을 남기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현재 남아 있는 일제강점시기의 모사도는 모두 關野貞 팀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제작한 것들이다. 벽화의 기록과 보존을 위

⁴⁰ 현재 남아 있는 모사도는 국립중앙박물관, 동경대학, 동경예술대학에 나뉘어 소장되어 있다. 그제한 항목에 대해서는 早乙女雅博, 「高句麗壁畫古墳の調査と小場恒古の模寫制作」, 『高句麗古墳壁畫』(共同通信社, 2005), pp. 333-335의 <표1>-<표5> 참조.

⁴¹ 『古墳保存ニ關スル覺書』(大正2年) 제7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벽화의 모사는 엄금할 것 (수십백 번이나 모사를 거듭한다면 점차 벽화의 손상을 증대시킬 것이고.....) 희망지는 총독부에서 모사한 것을 모사하게 하면 좋다”; 早乙女雅博, 「高句麗壁畫古墳の調査と保存」, 『關野貞アジア踏査』(東京大學綜合研究博物館, 2005), p. 279
 개인용: 그는 벽화의 손상이 증대될 것을 이유로 벽화 모사를 엄금하라고 건의한다. 무분별한 모사를 막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이지만, 강서 대묘만 하더라도 발굴 당시의 모사 이후 1930년에 자신들이 다시 모사를 시행하는 모순을 보인다.

해 시작했던 모사 작업은 발굴자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했던 것이다.

3. 벽화의 편년 설정과 양식 분석

關野貞의 고구려 고분벽화 해석은 시대 양식과 편년의 문제로 귀결된다. 벽화의 회화적 특성과 기법, 주제 등에 중점을 두어 설명한 것이 아니라 벽화가 그려진 시대를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고분벽화를 대하는 그의 목적이 ‘조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발굴한 15기의 고분벽화 양식을 모두 중국을 기준으로 설명하면서 때때로 일본 飛鳥時代 양식과의 유사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關野貞이 비교적 구체적인 비교 사례를 제시한 경우는 매산리 사신총의 벽화이다. 額打이 묘사된 인물의 옷차림이 六朝시대 銅鏡에서 볼 수 있는 인물상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⁴² 육조시대의 동경에 표현된 인물상 가운데 영건이 묘사된 예가 보인다는 점을 비교한 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한 예는 일본과의 비교에 나타난다. 강서 대묘의 천장삼각고임에 있는 인동초 문양과 法隆寺 夢殿 救世觀音의 光背에 나타난 문양 비교가 그것이다.⁴³ 關野貞에게 친숙했던 법룡사의 문양을 들어 말한 것으로, 실제 문양을 비교해보면 그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도8, 도9).

그러나 關野貞이 구체적으로 비교 대상을 언급한 예는 위의 경우를 포함해서 손에 꼽을 정도이다. 나머지 시대 양식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다소 막연히 중국과 연관지었을 뿐이다. 간성리 연화총은 ‘복위식에 가까운 두공 및 천개모양 연화문 등을 사용한 것’으로 이 고분이 지닌 의의를 강조하였다.⁴⁴ 쌍영총의 경우에는 정도가 좀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인물의 면모와 자세가 우아하고, 우마 묘사에 강건한 필을 사용한 것과 같이 실로 육조시대 회화의 좋은 자료’라는 것이다.⁴⁵ 쌍영총이 고구려의 무덤이라면 그 회화가 고구려 회화의 자료인 것이 당연한데도 육조시대 회화의 좋은 자료로 결론짓고 있다.

귀갑총에 이르러서는 문양의 해석에 모순점도 보인다. ‘두공의 접시무늬는 北魏 시대와 일본 飛鳥時代의 것과 유사하다’ 하면서도, ‘연꽃무늬, 괴운무늬는 北魏 양식의 흔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평양 천도 이전의 것’이라고 하였다. 북위 이전의 양식과 북위의 양식이 모두 나타난다고 말한 셈이다. 하지만 귀갑총이 삼실총과 비슷한 양식을 보인다는 점에서 ‘북위의

⁴² 關野貞, 『朝鮮の建築と藝術』(岩波書店, 1941), p. 381.

⁴³ 關野貞, 심우성역, 『조선미술사』(동문선, 2003), p. 115.

⁴⁴ 關野貞, 『朝鮮の建築と藝術』(岩波書店, 1941), p. 389.

⁴⁵ 위의 책, p. 396.



도8 인동문양, 강서대묘



도9 인동문양, 범룡사통전 구세관음 광배

흔적은 없다'고 설명하기도 하는 등, 문양의 시대를 밝히는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이렇듯 모든 고구려 고분벽화를 지나치게 중국과 연관 짓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해석이었다. 그렇다면 중국 예술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었던 關野貞이 이런 해석상의 위험을 감수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關野貞이 처음으로 고구려 고분벽화를 마주했던 강서 대묘의 발굴 현장으로 돌아가 본다. 이 강서 대묘에서 그가 본 것은 '뉘을 잃을' 정도로 위대한 벽화였다.⁴⁶ 그가 보아야 할 것은 식민지 조선예술의 위대함은 아니었다. 조선 고적 조사에 기대했던 일본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기에 만족할 사적의 조사'였으니,⁴⁷ 강서 대묘의 뛰어난 벽화는 도리어 '입증되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실'의 사적이 되는 셈이다. 關野貞이 '중국의 영향'이라는 해석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은 바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입장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은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민

⁴⁶ 위의 책, p. 402.

⁴⁷ 藤田亮策, 「朝鮮古蹟調査」, 『古文化の保存と研究』(吉川弘文館, 1953), p. 353. 그들은 史蹟을 통해 역사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 사실을 전제로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사적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선후 관계가 뒤바뀐 셈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만족할 만한 사적은 무엇이겠는가. 조선에 대한 강제 점령을 정당화하는 사적을 찾는 일이 당시 일본 사학계가 조선 고적 조사에 기대했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겠다.

족이므로 때때로 나타나는 뛰어난 문화는 오직 중국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은 당시의 식민사관과도 부합되는, 매우 그럴싸한 논리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시작된 ‘중국적인 양식 찾기’는 다른 고분들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다소 무리한 해석으로까지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양식에 대한 모호한 표현은 편년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가 벽화고분의 편년에서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首都의 위치였는데 집안 지역의 고분들은 평양 천도 이전의 것으로서, 평양 부근의 고분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편년의 근거로 삼은 것은 연화문이나 인동문 등의 문양이다. 연화문의 등장을 불교문화의 전래와 연관지음으로써 연화문이 나타나지 않는 고분을 좀더 오래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화 기법의 고졸함 등을 들어 연대의 오래됨을 밝히고 있거나 고분이 위치한 지형을 들어 평원왕이나 양원왕 등, 특정한 왕의 능으로 추정하는 예도 있다(표2).

스스로의 편년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벽화고분의 연대를 추정하고자 했다는 면에서

표2 關野貞 발굴 고분 편년

고 분	편 년
1. 삼실총	5세기 초 / 372-427년 / 最古의 고분
2. 산연화총	위와 같은 시기 / 위와 연판 유사
3. 귀갑총	위와 같은 시기 / 위와 연판 유사
4. 미인총	위와 같은 시기
5. 메산리 사신총	5세기 초 / 最古의 고분
6. 호남리 사신총	5세기 초 / 위와 가까운 시기
7. 개마총	위와 같은 시기 / 삼실총보다 반규모습 진보
8. 천왕지신총	6세기 초 이전 / 귀갑총과 연화문 유사
9. 성총	1450년 전 / 5-6세기 / 감신총과 가까운 시기
10. 감신총	6세기 초
11. 쌍영총	6세기 초 이전 / 간성리 연화총과 연화문 유사
12. 간성리 연화총	양원왕(6세기 중반)의 능으로 추정
13. 안성동 대총	연대 추정 없음 / 위와 천장 모습 유사
14. 강서대묘	1350년 전 / 평원왕의 능(6세기 후반)
15. 강서중묘	위와 동시대 내지 약간 뒤

발굴자로서의 역할에는 충실했다고 생각된다. 현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편년에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안악 호분처럼 정확한 연대의 기준을 알려주는 벽화고분이 발굴되기 전인, 그가 활동했던 시대의 한계를 생각해본다면 이 정도의 기준을 세운 것도 상당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벽화고분의 편년은 현대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소 이견이 있는 문제로서, 이 논문에서는 關野貞의 주장 안에서 상충되는 면이 있거나 논리적으로 모순을 보이는 점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보고자 한다.

먼저 가장 오래된 벽화고분이 무엇이나에 관한 문제이다. 關野貞은 삼실총을 '적어도 천오백 년 전의 것으로 동양에 현존하는 최고의 벽화'라고 하면서도,⁴⁸ 메산리 사신총에 대해서도 '오늘날까지 발견된 고구려 고분벽화 가운데 가장 오래된 듯하다. 아마 약 천오백 년 전에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⁴⁹ 그는 집안 지역의 고분들이 평양 지역의 것들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고 보았는데, 이에 따르면 삼실총이 메산리 사신총보다 앞선 시기의 무덤이 된다. 그러나 불교 수입을 알려주는 연화문양의 등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연화문이 등장하는 삼실총이 불교의 영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 메산리 사신총보다 나중에 조성된 고분일 수밖에 없다.

연화문의 변화 모습에 대한 설명에서도 모호한 부분이 드러난다. 6세기 초로 편년한 천왕지신총의 연화문양이 귀갑총과 유사하다고 말하면서도, 귀갑총의 연판은 동양 最古의 고분인 삼실총이나 산연화총의 것과 비슷하여, 귀갑총과 삼실총을 같은 시기의 무덤으로 본 점이다. "벽화의 연대 추정상 가장 주의할 것은 연화문양과 피운문이다"라는 자신의 말대로라면,⁵⁰ 연화문의 유사성이 편년의 기준이 되고 있는 셈인데, 유사한 연화문을 가진 벽화고분의 연대를 한 세기나 차이 나게 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도 10-도 12). 關野貞은 벽화를 해석함에 있어 그 '시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다보니 고구려의 고유성을 나타내주는 벽화의 표현법이나 주제 등을 놓치고 말았다. 후대의 연구이긴 하지만, 사신도만으로 무덤의 네 벽을 장식한 것은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양식이며,⁵¹ 연화문으로 묘실을 장식하는 것도 고구려인들이 창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⁵² 그러나 關野貞에게 사신도나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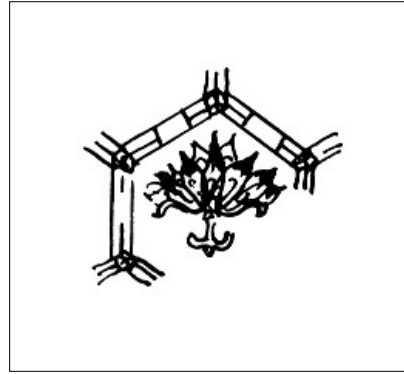
⁴⁸ 關野貞, 심우성역, 『조선미술사』(동문선, 2003), p. 106.

⁴⁹ 위의 책, p. 111.

⁵⁰ 關野貞, 「六朝の畫象石」, 『考古學雜誌』第14卷3號(1913. 12), p. 3.

⁵¹ 이태호, 「삼국시대 후기 고구려와 백제의 사신도 벽화」, 『고구려연구』16집(2003), p. 291.; 永島暉巨眞, 「고구려 벽화고분 사신도묘의 출현」, 『고구려고분벽화』(연합뉴스 2006), p. 58.

⁵² 劉萱堂, 「중국 집안 고구려 벽화고분과 요동, 요서 한위진 벽화고분 비교연구」, 『고구려연구』4집(1997), p. 178.



도10 연화문, 천왕지신총 (모사도)
 도11 연화문, 귀갑총 (모사도)
 도12 연화문, 삼실총

화문은 중국과의 연결을 말할 수 있는 도상의 하나일 뿐이었던 듯하다. 누구보다도 많은 벽화고분을 실견한 그의 연구가 좀더 풍부한 해석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은, 후대의 벽화 연구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해볼 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IV. 맺음말

關野貞의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는 최초라는 이름에 주어진 무조건적인 의미 부여와 관변 학자라는 이력에 대한 일방적인 편견의 사이에 놓여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평가의 극점에서 벗어나 그의 연구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關野貞의 연구가 지닌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그는 벽화고분의 명명이라는 상징적인 행위와 모사도 제작을 통해 최초 발굴자로서 벽화 연구사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 關野貞의 연

구 논문은 해설과 함께 사진과 실측도, 모사도 등을 싣고 있어 자료로 충실한 점에서도 두드러진다. 정확한 실측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연구 방식은 근대적인 학문의 한 표준을 제시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그는 조직적인 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엄청난 작업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명민한 관리자로서의 면모와 함께, 하루하루의 조사 내용을 꼼꼼하게 필드 카드에 기록하는 성실한 연구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조사와 함께 벽화 보존의 방법을 고민하고, 시대의 한계 속에서도 이를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 학자로서의 역량과 자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關野貞은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고구려 고분벽화의 회화적 특성을 중국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만 해석하거나, 시대 양식의 변화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런 무리한 회화 양식의 적용으로 인해 벽화의 편년 작업에서도 스스로 논의에 모순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의 연구는 식민지배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니, 실제로 그의 논문이나 저서 곳곳에서 조선의 미술을 가치 폄하하는 표현들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벽화고분의 최초 발굴자로서의 그의 벽화 연구는 후대 학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의 사후에 이어진 1930년대의 벽화고분 발굴 상황을 보면 발굴 시작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보고서의 작성과 조사 과정의 사진 촬영, 모사도와 실측도 제작 등, 그 과정 하나하나가 關野貞이 시작한 벽화고분 조사 방법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벽화고분 발굴에 참여한 池内宏(이케우치 히로시), 梅原未治(우메하라 스에이지) 등의 일본인 학자들은 조선 고적 조사 현장에서 關野貞의 발굴 방식을 익히 알고 있었던 인물들로, 이처럼 그의 연구는 조사 방식과 벽화 해석의 관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關野貞이 제시한 방식이 이후의 벽화 연구를 규정하고 있는 셈인데, 역으로 생각하자면 그의 방식이 기준을 잡아줌으로써 이후의 고분 발굴이 큰 편차 없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關野貞 연구의 특성이 일반화하는 현상이야말로 그가 남긴 가장 큰 영향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발굴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자들의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든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인 학자들이 그의 글과 이미지를 인용하면서 그 해석을 여과 없이 수용한 예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의 시각에 대한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조선의 학자들 또한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논의를 펼치지 않을 수 없었다. 關野貞은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사의 첫 장을 차지하면서, 이렇듯 그의 연구 자체가 중요한 ‘자료’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⁵³

마지막으로 그가 연구한 대상은 고대의 벽화이지만 근대 학문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해본다. 조사 대상이 고대의 무덤이었다는 것은 근대적인 그의 조사 방

식과 더욱 대조를 이루어, ‘정체된 조선과 근대적인 일본’이라는 이미지 창출에도 기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⁵⁴ 關野貞에 관해서는 이미 일본에서 광범위한 기초 자료 정리와 함께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서, 우리의 눈으로 새롭게 찾아 해석해야 할 부분 또한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 주제어(key words) __ 關野貞(세키노 타다사 Sekino Tadashi), 고구려 고분벽화(Goguryeo's ancient tomb murals), 『조선미술사』(Joseon History of Fine Arts), 고분의 命名(naming of ancient tombs), 벽화 模寫(reproduction of murals)

▣ 투고일 2008년 8월 30일 | 심사개시일 2008년 10월 7일 | 심사완료일 2008년 11월 7일 ▣

⁵³ 關野貞의 영향이 보이는 일제강점기 전후의 벽화 관련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澤村專太郎, 「朝鮮古墳發見の壁畫」, 『國華』 276(1913. 5); 浜田耕作, 「朝鮮の古墳」, 『考古學雜誌』 14卷 4號(1919); 一氏義良, 『東洋美術史』(照林堂書店, 1936), pp. 244-254; 윤희순, 『조선미술사 연구』(열화당 2000), p. 27.

⁵⁴ 일본의 ‘굴절된 오리엔탈리즘’(강상중, 이경덕·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이산, 1997), p. 120)의 한 단면을 미술사학에서도 생각해보게 한다.

참고문헌

關野貞의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목록

- 「新に發見せる高句麗時代の壁畫」, 『美術新報』第12卷 4號, 1913. 2.
「朝鮮江西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古墳」, 『考古學雜誌』第3卷 8號, 1913. 4.
「朝鮮古墳の壁畫に就て」, 『美術新報』第15卷 5號, 1914. 1.
「朝鮮平壤附近の樂浪高句麗及び支那輯安縣附近の高句麗遺蹟」, 『朝鮮及滿洲』第78號, 1914. 1.
「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墳墓」, 『建築雜誌』326號, 1914. 2.
「滿洲國輯安縣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蹟」, 『考古學雜誌』第5卷 3・4號, 1914. 11・12.
「高句麗時代の壁畫」, 『國華』294號(1914. 11), 297號(1915. 2), 298號(1915. 3).
「新に發見せられたる高句麗時代の繪畫」, 『國華』327號, 1917. 8.
「新に發掘せる高句麗時代の古墳」, 『人類學雜誌』第32卷 3號, 1917. 3.
「平安南道大同郡・順川郡及龍崗郡古蹟調査報告」, 『大正5年度古蹟調査報告』
「平安北道及滿洲國高句麗古蹟調査略報告」, 『大正6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高(句)麗時代の墳墓及壁畫」(上)・(下), 『書道及畫道』第4집 4・5號(1919. 4・5)
「順川郡北倉面の八角天井塚に就て」, 『朝鮮と建築』第4輯 11號, 1925. 11.

단행본

- 윤용이・유홍준・이태호, 『한국미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 학고재, 1997.
윤희순, 『조선미술사연구』, 1946. (재발간: 열화당, 2000.)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사계절, 2000.
강상중, 이경덕・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高木博志 外,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2004.
와카바야시 미키오, 정선태 역, 『지도의 상상력』, 산치림, 2006.
李孝德, 박성관 역, 『포상 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關野貞, 『朝鮮美術史』, 朝鮮史學會, 1932.
關野貞, 심우성 역, 『조선미술사』, 동문선, 2003.
關野貞,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1941.
浜田耕作, 『東亞考古學研究』, 岡書院, 1939.

一氏義良, 『東洋美術史』, 照林堂書店, 1936.

早乙女雅博 外, 『關野貞アジア踏査』, 東京大學綜合研究博物館, 2005.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1, 2

『高句麗古墳壁畫』, 共同通信社, 2005.

논문

西谷正, 「1945년 이전의 고구려 유적 발굴과 유물」, 『고구려연구』 12집, 2002, pp. 97-106.

서길수, 「에두아르 사반느의 고구려 국내성 탐사(1907)에 관한 연구」, 『고구려연구』 22집, 2006, pp. 91-177.

永島輝臣慎, 「고구려 벽화고분 사신도묘의 출현」, 『고구려고분벽화』, 연합뉴스, 2006, pp. 53-62.

劉萱堂, 「중국 집안 고구려 벽화고분과 요동·요서 漢魏晉 벽화고분 비교 연구」, 『고구려연구』 4집, 1997, pp. 133-199.

劉萱堂, 「壁畫模寫와 高句麗 壁畫무덤의 裝飾藝術」, 『고구려연구』 16집, 2003, pp. 481-521.

이태호, 「삼국시대 후기 고구려와 백제의 사신도 벽화」, 『고구려연구』 16집, 2003, pp. 287-310.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사」, 『고구려연구』 4집, 1997, pp. 45-81.

早乙女雅博, 「세키노 타다시의 조선고적조사」, 『국제학술대회—고구려 문화와 고분벽화』, 서울역사박물관, 2006.

關野貞, 「六朝の畫象石」, 『考古學雜誌』 14권 3호, 1923. 12, pp. 1-7.

內藤湖南(胡次郎), 「高句麗古墳の壁畫に就て」, 『支那繪畫史』, 弘文堂書房, 1938, pp. 259-299.

藤田亮策, 「朝鮮古蹟調査」, 『古文化の保存と研究』, 吉川弘文館, 1953, pp. 325-328.

西川宏, 「日本帝國主義下における朝鮮考古學の形成」, 『朝鮮史研究會論文集』 7, 朝鮮史研究會, 1970. 6, pp. 94-116.

鄭仁盛, 「植民地朝鮮における「古蹟調査」の記憶」, 『コロニアリズムと「朝鮮文化」』, 早稻田大學朝鮮文化研究所, 2006, pp. 9-18.

中村清兄, 「高句麗時代古墳について」, 『考古學論叢』 第4輯, 1937. 3, pp. 394-401.

中村清兄, 「再び高句麗時代古墳について」, 『考古學論叢』 第7輯, 1938. 6, pp. 61-84.

澤村專太郎, 「朝鮮古墳發見の壁畫」, 『國華』 276, 1913. 5 (『東洋美術史の研究』, 星野書店, 1932, pp. 394-398 계수록).

일제강점기의 고구려 고분벽화 조사와 연구는 동경제국대학 교수인 關野貞(세키노 타다시)에 의해 시작되었다. 1902년 강서 대묘에서의 벽화 발견으로 고구려 고분벽화의 존재가 알려지기는 하였으나, 조직적인 벽화고분 조사는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직후 朝鮮古蹟調査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발굴된 벽화고분의 수는 모두 28기이다. 이 가운데 1912년 강서 대묘 조사에서 시작된 1910년대의 벽화고분 15기의 조사가 모두 關野貞의 손을 거쳤을 만큼,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關野貞의 벽화 연구가 지닌 특성을 살펴보면 그것 자체로 그 성과와 한계를 담고 있다. 먼저 그는 벽화고분의 命名이라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고분의 이름과 함께 자신의 이름도 역사에 남기게 되었다. 그의 연구 논문은 해설과 함께 사진과 실측도, 모사도 등을 싣고 있어 자료로서 충실한 점에서 두드러진다. 정확한 실측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연구 방식은 근대적인 학문의 한 표준을 제시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그는 조직적인 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엄청난 작업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명민한 관리자로서의 면모와 함께 성실한 연구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학자로서의 자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고구려 고분벽화의 회화적 특성을 중국의 영향이라는 관점으로만 서술하고 있다. 이런 무리한 회화 양식의 적용으로 인해 벽화의 편년 작업에서도 스스로의 논의에 모순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그의 연구가 식민지배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의 논문과 저서 곳곳에서 조선의 미술을 가치 폄하하는 표현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발굴과 함께 진행된 벽화 연구는 후대의 연구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30년대 이후 벽화를 발굴하는 일본인 학자들에게 조사 방법과 벽화 해석의 관점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발굴에 참여하지 않은 학자들에게 미친 영향 또한 대단한 것이었다.

그가 연구한 대상은 고대의 벽화이지만 근대 학문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해본다. 조사 대상이 고대의 무덤이었다는 것은 근대적인 조사 방식과 더욱 대조를 이루어, '정체된 조선과 근대적인 일본'의 이미지 창출에 기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분벽화 발굴이 '사실적인' 조사였다는 평가의 이면에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지배를 정당화하면서, 이 땅의 고적마저도 소유하고자 하는 제국주의의 시선이 내재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Sekino Tadashi's Survey of Goguryeo Ancient Tomb Murals, and I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Lee Jongsu*

Investigation of and research into Goguryeo ancient tomb mura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were initiated by Professor Sekino Tadashi of Tokyo Imperial University. This initiative, conducted as part of Japan's survey of Joseon's ancient tombs, began with the Gangseo Great Tomb in 1912, while further investigations into the murals of fifteen ancient tombs were conducted by Sekino in the 1910s, making him a significant presence in the research history of Goguryeo's ancient tomb murals.

Sekino accomplished considerable achievements, though they suffered from certain limitations. He gave names to those tombs with murals he explored, thereby allowing his name to be recorded in the history of this activity. His works include explanations, photos, drawings based on actual measurements, and copied drawings, offering distinctively excellent references. His research methods, based on accurate measurement, were recognized for setting a standard in the early modern period of archaeological research in Korea. Furthermore, Sekino had a well-organized team to effectively handle a vast workload, giving him the image of a competent manager as well as a faithful researcher.

However, Sekino tried to describe, without the presentation of specific data, the

* Ph. D Candid, Myongji University

characteristics of Goguryeo ancient tomb murals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Chinese influence, an attitude which led him to contradict himself when chronicling the murals. In the research he conducte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including various phrases in his research, expressions are used which reveal a certain contempt for the value of Joseon fine arts on his part.

His research into the Goguryeo tomb murals along with his excavation work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later researchers. He established certain criteria for research methods and the interpretation of murals for those Japanese researchers who explored the murals from the 1930s onwards, as well as for those scholars who did not personally participate in the excavations. Sekino pioneered research into Goguryeo ancient tomb murals, and produced valuable data. However, although his efforts to explore those ancient tomb murals were geared towards fact-finding surveys, it cannot be denied that they were intended to justify Japan's colonial rule over Joseon and even to take Joseon's historical relics.